

더 이상 산주의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위협하지 말라!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건강한 숲으로 지속가능한 산림탄소경영을 이루고자 하는 백년대계의 산림정책을 흔드는 것이다.**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인 임목벌채(수확)를 산림훼손이라는 굴레를 씌워 죄악시하는 일부 환경단체의 인식에 우리 217만 산주는 분노하며,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

지구촌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의 산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의 수종과 소극적인 산림관리로는 지속가능한 산림이 될 수 없다. **보다 적극적인 산림관리로 흡수량 증진과 함께 수확된 목재품을 이용한 탄소저감방안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나무를 벌채하지 말라는 것은 가축이 불쌍하니 늙어 죽을 때까지 키우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농민에게 농경이나 농작물 수확도 환경에 저해되니 하지 말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산림에서의 수확 벌채는 산림탄소중립을 위한 수확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생태계서비스 측면에서는 공급기능의 발휘이다. 산주 및 산림경영인은 황폐된 우리 산림을 푸르게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수십 년 동안 나무를 심고 산을 가꾸어 왔다. 앞으로도 탄소중립, 생태계서비스 등에 기여하는 수익성 있는 산림탄소경영을 할 것이다.

산림의 70%가 사유림이다. 그 사유림을 임업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주는 환경파괴자가 아니다. 환경과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산주의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을 더 이상 막지 말기를 당부한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한국임업후계자협회/한국원목생산자협회/한국임업협동조합/한국산림기술인회/한국양묘협회/한국조경수협회/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한국분재조합/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임산버섯생산자단체연합회/한국산양삼협회/한국목재집연합회/남북산림협력포럼/한국토석협회/한국임우회